



지난 6월 스위스 취리히 경매에서 금정총림 범어사가 매입한 칠성도(七星圖) 3점이 7월 14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돌아왔다. 보제루에서는 제막식과 법요식이 열렸다. 법요식 후 5000여 불자들은 칠성도를 참배하며 불심을 더욱 다졌다.



법요식 전 금어연 이운행렬이 경내를 돌고 있다.



수불 스님은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0년 만의 '환지본처', 환희심 자아내다

7월 14일 범어사에서 '칠성도' 환수 법요식 열려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반출됐던 19세기 대표적 인성보인 범어사 칠성도가 50여 년 만에 환지본처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7월 14일 범어사에서 5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칠성도(七星圖) 3점 귀환 법요식'을 열었다.

1861년 제작된 범어사 칠성도는 남도지역에서 활동한 선종(善宗) 스님이 그린 작품으로 밀양 표충사에서 만들어진 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왔다. 북두칠성을 비롯한 하늘의 여러 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범어사는 지난 5월 27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칠성도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환수 조치에 나선 가운데 6월 3일 스위스 취리히 경매에서 이번 칠성도 3점을 매입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인인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이 경매 매입금을 보시했다.

이날 법요식에 앞서 칠성도는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법요식에 앞서 칠성도는 오전 경내 이운식과 금어연 행렬, 귀환식 등을 통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됐다. 범어사 칠성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성보박물관 앞마당에는 일간지와 방송사 및 각종 언론사들이 줄을 지어있다.

행사는 환희와 감동 속에 진행됐다. 범어사의 성보 중 하나인 일주문 앞에서 주지 수불 스님은 향과 차를 올리며 칠성도의 귀환을 축하했으며 함께한 사부대중은 이운식을 준비했다. 일주문부터 범어사 보제루까지 이운식을 진행하는 축하행렬은 화려한 장엄물로 문화재 귀환의 기쁨과 소중함을 일깨우듯 범어사 경내를 돌며 이운식을 봉행했다. 칠성도는 금어연 이운식으로 이동했다. 행렬 지나갈때마다 경내를 가득메운 불자들은 환희에 넘친 표정을 지었다.

법요식 전 스님 35명이 인도한 금어연 행렬이 일주문을 지나 보제루 앞마당에 진입하자 참석한 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근을 시작했다.

보제루 앞 마당에서 축하 법요식을 진행한 범어사는 5000여 명의 축하객들로 자리가 가득 채워졌다. 법요식은 경과보고와 범어사 주지인 수불 스님의 인사말, 축사와 축가, 제막식, 육법공양, 참배 등의 순으로 열렸다. 마지막 제막식은 육법 공양과 수불 스님의 차 공양 그리고 스님들의 삼배로 마무리 됐다. 제막식 후 참여한 불자들은 보제루에 들어가 칠성도를 향해 절을 하며 귀환을 축하했다.

범어사 칠성도 귀환식에 참여한 불자 김성희(67)씨는 "문화재 귀환식을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여법하게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스님들께서 직접 성보 박물관에서 들고 오는 모습부터 육법 공양과 이운식

하는 모습에 환희심이 절로 생겨났으며 보물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순간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배정희(43)씨는 "범어사 근처에 살아서 오늘 행사가 하는 걸 알고 찾아와봤는데 이운하는 장면이 황제를 모시고 오듯 장엄했고 아름다웠다"며 "불교 관련 문화재인걸로 알고 있는데 성보라고 불리는 그 문화재들이 그 가치에 맞게 대우를 받은 거 같아 내가 뿌듯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19세기 부산지역 대표 작품 꼽혀

불자 힘모아 6월 스위스서 매입

이운식서 5000명 정근으로 맞이해

수불 스님은 "범어사 칠성도가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며 먼저 이날 모인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해외에 반출된 칠성도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배우고 향후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해외문화재를 다시 매입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 관련단체가 불교계와 협력해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은

환수 사상 첫 사례"라며 "향후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성보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범어사 신도회에서는 이번 칠성도가 반출된 데에 참회하는사를 밝히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성보문화재들의 환수를 발원하는 7일기도 임재를 알렸다.

이운희 범어사 신도회 회장은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신도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앞으로 잃어버린 성보를 우리 손으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금어연에서 금어(金魚)는 부산 금정산 범어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범어사만의 가마 행렬이다. 칠성도는 범어사 내 성보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며 범어사는 경내에 '칠성각'을 새로 조성해 영구 봉안할 계획이다. 장소는 옛 극락암 장소(현 휴휴정사 인근)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어사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칠성도의 부산시 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또 아직 환수되지 못한 칠성도 8쪽에 대한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범어사 정상창 기획실장은 "현재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에 칠성도 2축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6축의 행방은 알 수 없다"며 "국외재단과 부산시 등에 협조를 구해 나머지도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범어사=하성미 기자

칠성도, 19세기 부산 불심 대변

1861년 극락암에 봉안됐다가 6·25 전쟁 등 한국사회 혼란기인 1950~60년대 초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불화인 '범어사 칠성도'는 칠성과 북극성 신앙이 반영된 불교회화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려진 것으로, 화면은 중앙의 여래 1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여래 3구씩을 각각 배치하여 칠성여래를 나타냈다. 칠성여래 아래쪽 하단에는 각각 동자들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구름 무늬를 경계로 칠성여래 상단에는 군상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표현하고 있다.

범어사 칠성도는 화면의 아랫부분에 기술된 기록 내용으로 19세기 명문 서사이나, 조선 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각 당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범어사 칠성도는 조성 연대와 제작처, 화승, 봉안처 등 조성 유래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며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범어사=하성미 기자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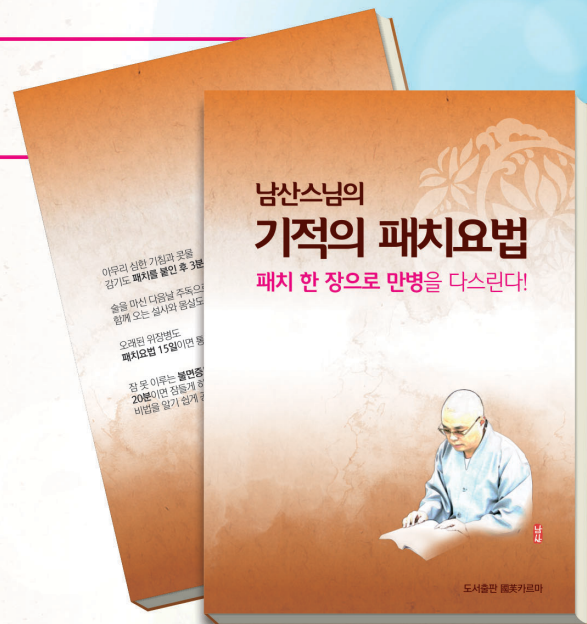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본문 중에서) **뚝!**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본문 중에서)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본문 중에서) **사!**



정가 10,000원 (포켓북)

저서
위장병 양노병 왜 못 고치는가? / 기침수요법 / 기적의 패치요법 / 수족온욕법 / 대변이정 / 카다슈

약력
前 녹석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동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교수 / 前 보림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기획실 인안 치료 재활 기획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동국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차의과대학교 의학박사

방영
MBC 화제전중 / 놀라운 세상 / 여성교양 강좌 / SBS 동기생전류 / 모닝와이드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